

Hot Issue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



정석희
(주)세티즌 콘텐츠팀장
ohmygod@cetizen.com

I. 들어가며

II. 기존 이동통신 시장의 해묵은 논란

III.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

IV. 향후 전망과 제언

첨부1. 국내외 이동전화 요금 비교

첨부2. 세티즌에서 집행된 이동통신 사용자 대상 리서치

I 들어가며

지난 12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 워크숍에서 “서민가계부담 30% 절감 공약의 하나로, 유류비와 이동통신비 부담을 대통령 취임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불거지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종사자로서 지켜본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당면과제 등을 고려할 때 생활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공약과 정책으로 언급된 이동통신 정책 이슈가 얼마되지 않은데 대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가십성으로 끝나기를 되풀이 해 왔지만,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이동통신 요금 문제나 이동통신 서비스 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과당 이익 추구 등에 관해 빠짐없이 문제제기가 잇달았던 전력을 보더라도, 이번에 제시된 이동통신 관련 정책은 다소

Hot Issue :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업계가 자율적인 의지로 요금 인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해묵은 논란속에 쌓인 양금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이번 이동통신요금인하 논란은 전세계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트렌드에 역행해 온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는 만들어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II 기존 이동통신 시장의 해묵은 논란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나 제한이 해제되고 자율적인 무한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동통신 요금 부담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해외에 비해, 국내는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이라는 로드맵에 따라 3개 이동사에 대한 규제 틀속에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이동통신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가 도입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이동통신사의 수익성 추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한 결과 가구별 소비자 부담은 날로 증가되어 가구별 지출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표 8, 9, 첨부 1>

<표 1> 연도별 이동통신사 순익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 SKT | KTF | LGT |
|----------|-------|-----|-----|
| 2003 | 1,766 | 407 | 289 |
| 2004 | 1,984 | 716 | 546 |
| 2005 | 2,323 | 769 | 399 |
| 2006 | 2,524 | 755 | 589 |
| 2007 상반기 | 1,982 | 509 | 407 |

▶ 연도별 소비자 가계에서 이동통신 요금 부담 현황

지난 2007년 11월 세티즌(www.cetizen.com)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이동통신 사용자의 불만이 많은 부문은 "비싼 요금"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특히 가입비와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90%의 고객이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절반이상이 기본요금(29%)과 가입비(23%)과 같은 고정비 형태의 요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실제로 각 이동사에서 발표하는 매출 현황<표 3>을 보면 기본 요금 및 가입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본 요금의 경우 SKT 26%, KTF 35.4%, LGT 45.1% 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림 1> 세티즌에서 실시한 이동통신 요금 중 불만 항목 리서치 결과

Q 이동통신 요금 중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은



<표 2> SKT 매출액 중 가입비 및 기본요금 비중 (단위: 십억 원, %)

| | 2007F | 2008F | 서비스매출액 대비 |
|-----------|----------|----------|-----------|
| 매출액 | 11,302.3 | 11,761.6 | - |
| 서비스매출액 | 11,302.3 | 11,761.6 | 100.0 |
| 가입비 | 387.6 | 394.8 | 3.4 |
| 기본료 | 2,967.5 | 3,058.0 | 26.0 |
| 음성통화료 | 3,771.5 | 3,915.8 | 33.3 |
| 무선인터넷 | 2,805.1 | 2,956.9 | 25.1 |
| SMS | 336.0 | 256.8 | 2.2 |
| 부가서비스 | 285.1 | 327.4 | 2.8 |
| 접속료 | 1,085.6 | 1,108.7 | 9.4 |
| 재판매, 매출할인 | 0.0 | 0.0 | 0.0 |
| 영업비용 | 8,964.7 | 9,126.2 | 77.6 |
| 마케팅비용 | 2,775.9 | 2,853.5 | 24.3 |
| 영업이익 | 2,337.7 | 2,635.4 | 22.4 |
| 순이익 | 1,884.9 | 1,661.3 | 14.1 |
| EBITDA | 4,160.9 | 4,335.4 | 36.9 |

출처 : SK텔레콤, 한국투자증권

(표 3) KTF 매출액 중 가입비 및 기본요금 비중 (단위 : 십억 원, %)

| | 2007F | 2008F | 서비스매출액 대비 |
|-----------|---------|---------|-----------|
| 매출액 | 7,179.5 | 7,236.1 | - |
| 서비스매출액 | 5,533.7 | 5,753.6 | 100.0 |
| 가입비 | 96.5 | 92.4 | 1.6 |
| 기본료 | 2,024.2 | 2,036.4 | 35.4 |
| 음성통화료 | 1,283.4 | 1,396.7 | 24.3 |
| 무선인터넷 | 555.5 | 593.5 | 10.3 |
| SMS | 149.2 | 112.5 | 2.0 |
| 부가서비스 | 142.2 | 124.1 | 2.2 |
| 접속료 | 995.8 | 1,025.1 | 17.8 |
| 재판매, 매출할인 | 435.9 | 485.4 | 8.4 |
| 영업비용 | 6,742.0 | 6,631.5 | 115.3 |
| 마케팅비용 | 1,566.7 | 1,530.6 | 26.6 |
| 영업이익 | 437.5 | 604.6 | 10.5 |
| 순이익 | 263.2 | 395.7 | 6.9 |
| EBITDA | 1,389.6 | 1,557.7 | 27.1 |

출처 : KTF, 한국투자증권

(표 4) LGT 매출액 중 가입비 및 기본요금 비중 (단위 : 십억 원, %)

| | 2007F | 2008F | 서비스매출액 대비 |
|-----------|---------|---------|-----------|
| 매출액 | 4,629.4 | 4,772.1 | - |
| 서비스매출액 | 3,250.5 | 3,401.2 | 100.0 |
| 가입비 | 80.1 | 80.3 | 2.4 |
| 기본료 | 1,438.8 | 1,533.1 | 45.1 |
| 음성통화료 | 933.4 | 990.5 | 29.1 |
| 무선인터넷 | 291.1 | 308.6 | 9.1 |
| SMS | 100.1 | 77.5 | 2.3 |
| 부가서비스 | 99.0 | 92.7 | 2.7 |
| 접속료 | 660.2 | 688.5 | 20.2 |
| 재판매, 매출할인 | -252.0 | -292.4 | -8.6 |
| 영업비용 | 4,291.5 | 4,364.8 | 126.3 |
| 마케팅비용 | 969.4 | 968.3 | 28.5 |
| 영업이익 | 338.0 | 407.2 | 12.0 |
| 순이익 | 271.2 | 308.2 | 9.1 |
| EBITDA | 691.6 | 779.3 | 22.9 |

출처 : LG텔레콤, 한국투자증권

(표 5) 요금인하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십억 원, %)

| | SK텔레콤 | | KTF | | LG텔레콤 | |
|----------|----------|------|----------|-------|----------|-------|
| | 08F 영업이익 | 감소율 | 08F 영업이익 | 감소율 | 08F 영업이익 | 감소율 |
| 가입비40%인하 | 2,477.5 | -6.0 | 567.7 | -6.1 | 375.1 | -7.9 |
| 기본료5%인하 | 2,482.5 | -5.8 | 509.2 | -15.8 | 339.4 | -16.6 |

출처 : 각사, 한국투자증권

이러한 이동통신 가입비 및 기본요금의 인하 또는 철폐 논란은 이미 매년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나, 그럴 때마다 아직은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탓으로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려 왔었다. 이번엔 뭔가 달라 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일말이라도 가졌던 것은, 정보통신부의 재편과 행정부 개편 분위기도 일조를 했다.

III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

(표 6)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및 의견

| 구분 | 입장 및 의견 |
|----------|--|
| 대통령직 인수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요금 20% 인하 정권 출범전 현 정부와 협의 통해 시행 기본 요금 부과 단위 조정 및 규제 개혁 누진제, 쌍방향 요금 부과 제도 도입 검토 USIM 락 해제 MVNO 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부여 |
| 이동통신업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해 말, 망내할인 등을 통해 실질적 요금 인하 단행 했으므로 추가 여력 없음 차기 정부 모토인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에 배치 자율적인 경쟁 요구 |
| 시민단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위 휴대폰 요금 인하 방침 환영 유통질서 개선 또는 신규 사업자 진출 활성화 등 구체적 대안 필요 |
| 소비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료 / 가입비 철폐 또는 인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통령 취임전 휴대폰 요금 인하 방안을 매듭 지을 뜻을 밝히고 난뒤, 어수선한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가 내세우는 통신비 인하 방안은 이동통신 업체의 기본요금과 요금 부과 단위를 조정하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존 통신비의 20% 이상을 인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지난해 말 망내할인, 결합상품 출시 및 SMS 요금 10원 인하 등으로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단행했으므로 더 이상 추가 인하 여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주도의 강제 요금인하는 수익악화에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 인하는 세금을 내리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인수위 측이 주장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 인하 방침은 민간기업의 자율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차기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경제원리' 와 '규제완화' 와도 어긋나는 일" 이라며 매우 못마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수위는 이동통신요금인하 논란 관련 최종 결론을 유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면서, 인수위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제, 쌍방향 요금 부과 제도 도입 검토 등 섣부른 방안을 남발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절대적

Hot Issue :

일만큼 매우 냉정하게 나타났다. 세티즌의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97%인 절대다수가 양방향 요금 부과 방안과 누진제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통신회사별 대표 결합상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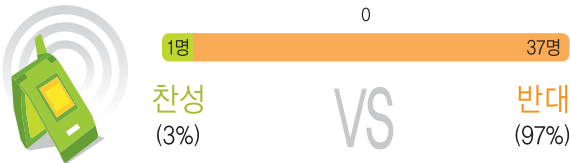
| 업체 | 결합상품 내역 | 할인 내용 |
|---------|--------------------------|------------------------------------|
| 케이티(KT) | 초고속인터넷+KTF 3세대 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료와 이동통신 기본료 각각 10% 할인 |
| SK텔레콤 | 이동통신+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 | 이동통신 기본료 최대 15%, 초고속인터넷료 최대 10% 할인 |
| 하나로텔레콤 |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주문형비디오(하-TV) | 각각 20%씩 할인 |
| LG텔레콤 |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주문형비디오 | 초고속인터넷이용료 10% 할인 |

〈그림 2〉 세티즌에서 진행된 양방향 요금부과 방안 및 누진제 대한 소비자 리서치

설문 대통령직 인수위의 양방향 통신 요금제 및 누진제 적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 2008.1.16 ~ 마감일 없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50%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통신요금제와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통신료 누진제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인수위는 현행 통신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간접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새정부 출범 후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IV 향후 전망과 제언

그동안 해마다 이동통신 요금 및 무선인터넷 과금 구조 등이 정치권의 도마에 올랐고, 선거철마다 이동통신 요금 관련 이슈가 제기되었다. OECD에 가입된 30개 국가 중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15~20위 정도로 그다지 저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활수준 및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그 부담 또한 적지 않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0년 초 18,000원 이었던 기본 요금은 소비자 단체들의 끊임없는 이의 제기 속에 수차례 인하되면서 현재는 약 13,000 원까지 내렸다. 그러나 해외 이동통신업체에 비해 국내는 기본 요금에 제공되는 무료 통화 등의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문제적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유효경쟁체제 유지라는 큰 그림속에 이동통신사 간의 자율적인 무한경쟁을 원천 차단한 결과일 것이나,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과 몫으로 돌아왔고 이는 다시 이동통신사의 안정적인 수익 실현에 근간이 되어왔다.

최근 신정부 인수위의 행정조직 개편 의지에 더하여,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분산되면서 그동안의 기업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다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홍콩 등도 민간 자율 경쟁 시장의 정착과 최소한의 규제 정책 운영으로 소비자 이익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금년 하반기 이후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MVNO 사업자 선정 등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9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이동전화 재판매(MVNO) 제도 도입과 함께 6월 3세대 단말기(WCDMA)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해제 등 사업자간 자율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 하는 방안은, 어쩌면 가장 무난한 방안이자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껏 왜곡된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실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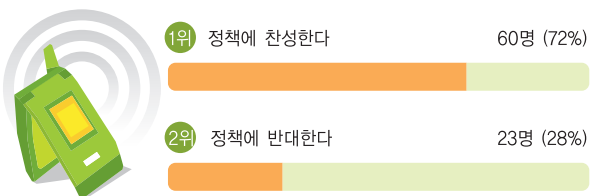
이제는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때다.

〈그림 3〉 세티즌에서 진행된 인수위의 요금인하안에 대한 소비자 리서치

설문 인수위의 요금인하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 2008.2.1 ~ 2008.2.10 마감

새 정부 인수위에서는 요금 인가제 폐지, 결합상품 및 망내할인 확대 등의 휴대폰요금 인하안을 준비 중입니다. 독점 사업자인 SKT의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전반적인 휴대폰 요금 경쟁이 발생하고, 다양한 요금상품의 할인 확대로 전체적인 요금인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본료, 가입비 같은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티즌 회원들께서는 인수위의 요금인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8〉 2005년 비목별 표준생계비/항목별 비중

(단위: 원, %)

| 구분 | 단인가구 | (비중) | 2인가구 | (비중) | 3인가구 | (비중) | 4인가구 I | (비중) | 4인가구 II | (비중) |
|---------|-----------|-------|-----------|-------|-----------|-------|-----------|-------|-----------|-------|
| 식료품 | 266,108 | 19.1 | 475,812 | 20.8 | 629,338 | 21.5 | 858,640 | 21.7 | 936,176 | 20.9 |
| 주거비 | 267,034 | 19.1 | 388,555 | 17.0 | 503,239 | 17.2 | 813,529 | 20.5 | 813,529 | 18.2 |
| 광열수도비 | 51,259 | 3.7 | 65,195 | 2.9 | 78,902 | 2.7 | 86,153 | 2.2 | 86,153 | 1.9 |
| 가구가사용품비 | 74,069 | 5.3 | 108,364 | 4.7 | 117,324 | 4.0 | 134,078 | 3.4 | 134,997 | 3.0 |
| 피복신발비 | 72,776 | 5.2 | 145,551 | 6.4 | 173,087 | 5.9 | 212,409 | 5.4 | 227,072 | 5.1 |
| 보건위생비 | 79,122 | 5.7 | 144,408 | 6.3 | 179,630 | 6.1 | 224,368 | 5.7 | 226,307 | 5.1 |
| 교육비 | 52,589 | 3.8 | 52,589 | 2.3 | 258,828 | 8.8 | 309,263 | 7.8 | 654,821 | 14.6 |
| 교통통신비 | 121,113 | 8.7 | 325,198 | 14.2 | 328,528 | 11.2 | 479,013 | 12.1 | 534,113 | 11.9 |
| 교양오락 잡비 | 294,193 | 21.1 | 364,782 | 16.0 | 381,116 | 13.0 | 417,448 | 10.5 | 417,448 | 9.3 |
| 제세공과금 | 118,532 | 8.5 | 212,334 | 9.3 | 277,798 | 9.5 | 423,950 | 10.7 | 448,156 | 10.0 |
| 합 계 | 1,396,795 | 100.0 | 2,282,788 | 100.0 | 2,927,790 | 100.0 | 3,958,851 | 100.0 | 4,478,772 | 100.0 |

출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표 9〉 2007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단위: 원)

| 구분 | 단신남성 | 단신여성 | 단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I | 4인가구 II | 4인가구 III |
|---------|-----------|-----------|-----------|-----------|-----------|-----------|-----------|-----------|
| 식료품 | 299,340 | 265,079 | 282,210 | 599,759 | 729,422 | 962,493 | 1,016,005 | 1,047,537 |
| 주거비 | 326,002 | 326,002 | 326,002 | 467,004 | 534,284 | 828,253 | 828,253 | 828,253 |
| 광열수도비 | 75,175 | 75,175 | 75,175 | 89,241 | 104,008 | 127,906 | 127,906 | 127,906 |
| 가구가사용품비 | 81,182 | 83,105 | 82,144 | 133,065 | 142,636 | 160,081 | 160,488 | 160,895 |
| 피복신발비 | 77,342 | 93,430 | 85,386 | 169,307 | 195,394 | 233,450 | 246,108 | 255,929 |
| 보건위생비 | 77,755 | 102,444 | 90,100 | 158,156 | 200,128 | 255,921 | 245,844 | 245,844 |
| 교육비 | 52,002 | 52,002 | 52,002 | 52,002 | 248,334 | 362,564 | 419,760 | 581,889 |
| 교통통신비 | 171,154 | 171,154 | 171,154 | 436,384 | 466,537 | 554,658 | 587,626 | 620,594 |
| 교양오락 잡비 | 345,050 | 310,205 | 327,643 | 366,722 | 411,180 | 419,446 | 419,446 | 419,446 |
| 제세공과금 | 138,121 | 136,761 | 137,474 | 273,194 | 387,798 | 576,989 | 608,760 | 659,785 |
| 합 계 | 1,643,123 | 1,615,357 | 1,629,290 | 2,744,834 | 3,419,721 | 4,481,761 | 4,660,196 | 4,948,078 |

출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 1 국내외 이동전화 요금 비교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이동사들은 OECD 국가별 비교 자료를 근거로 결코 비싸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내어 놓는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소비자들은 터무니 없는 생떼를 쓰고 있다는 말인가.

현재 국가별 다양한 통화 패턴과 사업자별 요금구조가 상이하고 또한 소득 수준도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적합한 요금 수준을 산출해 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현재 국내에서 발표되는 전세계 요금 비교 방법은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최적 요금제를 선정하여 각국의 요금을 비교하는 “최적요금제 방식”으로 OECD가 정기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둘째는 분당요금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매릴린치에서 부정기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주로 OECD 가입국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비교 데이터를 발표하는 OECD 발표 자료가 자주 인용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Ting 요금제”가 OECD 비교 데이터로 제공되어 작성된 국가별 요금 비교 테이블에서 한국의 요금제가 저렴한 것으로 발표된 사실이 알려져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요금 수준은 소량사용자(하루 1.4분 사용)의 경우 12위, 보통사용자(하루 3분)의 경우 23위, 대량 사용자(하루 6.4분)의 경우 2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즉, 소량 사용자의 경우는 다소 저렴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대량 사용자의 경우 비싼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Hot Issue :

〈표 10〉 국내 휴대전화 요금 OECD 비교 (단위 : 달러, 1년 요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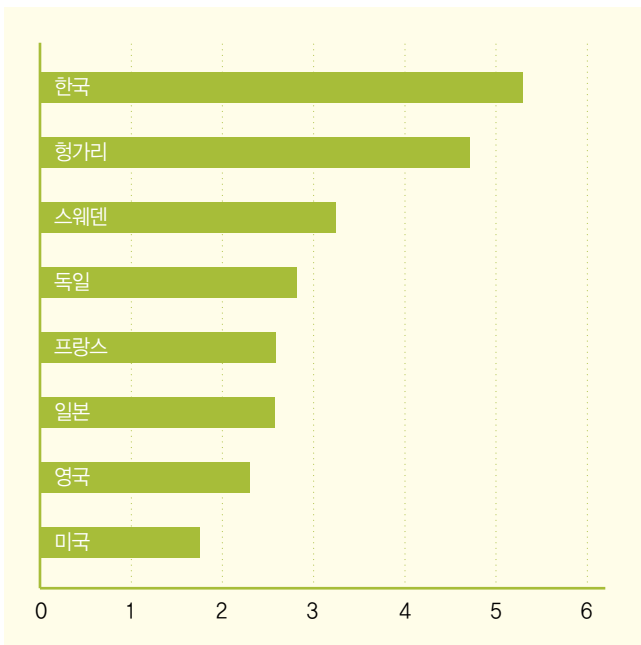
| | 국내요금 | 한국순위 (30개국 중) | OECD평균 | 가장 비싼 국가 | 가장 싼 국가 |
|------------------|------|------------------|--------|-------------|------------|
| 소량 사용자(하루 1.4분) | 226 | 12위 | 198 | 일본 320 | 덴마크 69 |
| 보통 사용자 (하루 3분) | 328 | 24위 | 408 | 체코 673 | 덴마크 89 |
| 대량 사용자 (하루 6.4분) | 549 | 21위 | 650 | 터키 1166 | 덴마크 184 |

출처 : OECD 통신 전망 2007 *OECD가 각국 휴대전화 요금에 실질 구매력을 감안해 산출

〈표 11〉 OECD 국가별 이동전화 요금(월 75통화 수준) (단위 : 달러)

| 국 가 | 요 금 |
|---------------|--------|
| OECD평균 | 556.40 |
| 독일(T-모바일) | 634.32 |
| 영국(T-모바일) | 583.76 |
| 프랑스(오렌지) | 527.67 |
| 미국(ATI) | 489.70 |
| 일본(NTT도코모) | 454.12 |
| 한국(SK텔레콤) | 421.62 |
| 캐나다(텔러스 모빌리티) | 418.60 |

〈그림 4〉 가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 비교



〈표 12〉 가계지출 중 통신비 지출 비중

| 구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
| 통계청 기준 | 4.63% | 5.48% | 6.08% | 6.55% | 6.48% | 6.26% | 6.08% |
| 한국은행 기준 | 4.62% | 4.66% | 5.82% | 5.53% | 5.50% | 5.28% | 5.13%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2007)

〈표 13〉 세계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와의 GDP 대비 이동통신비 비중 비교

| 국 가 | 1인당 GDP(USD) | 1인당 GDP대비 이동전화 비중 |
|--------|--------------|----------------------|
| 포르투갈 | 18,597 | 2.2% |
| 이스라엘 | 18,125 | 2.6% |
| 대만 | 15,328 | 1.7% |
| 체코 | 13,503 | 2.6% |
| 한국 | 17,133 | 2.5% |
| 5개국 평균 | 16,537 | 2.3% |
| 홍콩 | 26,715 | 1.0% |
| 독일 | 36,167 | 0.9% |
| 영국 | 29,121 | 1.5% |
| 미국 | 44,315 | 0.9% |
| 일본 | 36,434 | 1.3% |
| 5개국 평균 | 34,550 | 1.1% |

출처 : 매킬런치 Global Wireless Matrix 2006 4Q

첨부 2 세티즌에서 집행된 이동통신 사용자 대상 리서치 (전문 중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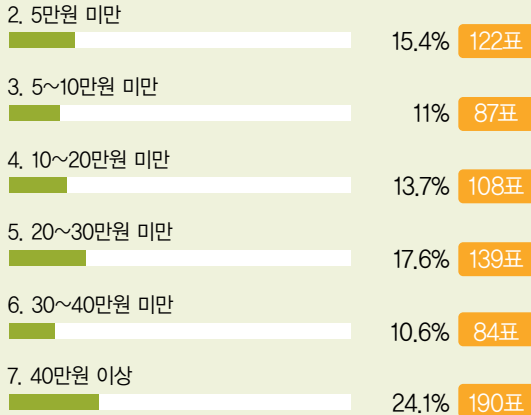
▶기간 : 2007. 10. 22 ~ 11. 4 (14일간) ▶참여인원 : 791명

Q 사용중인 기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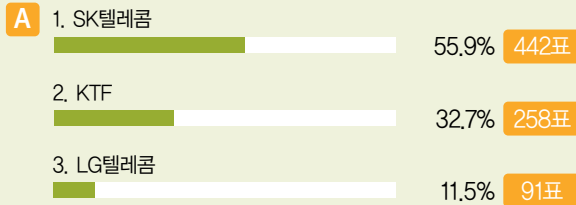
| | | |
|----------|-------|------|
| A 1. 전화기 | 95.9% | 758표 |
| 2. PDA | 2.8% | 22표 |
| 3. 기타 | 1.4% | 11표 |

Q 기기구입시 자신이 실제 부담한 가격

| | | |
|----------------------|------|-----|
| A 1. 없다 (무료로 전화기 받음) | 7.7% | 61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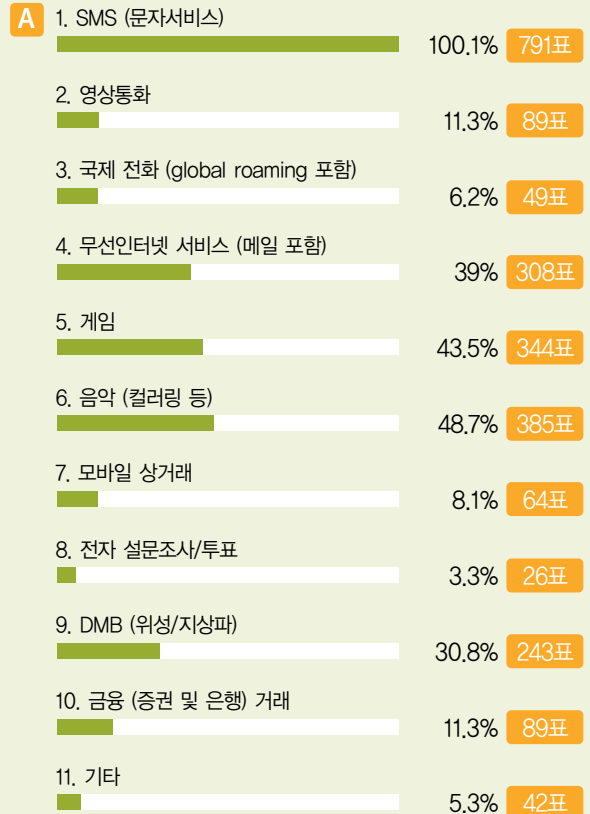
Q 사용 서비스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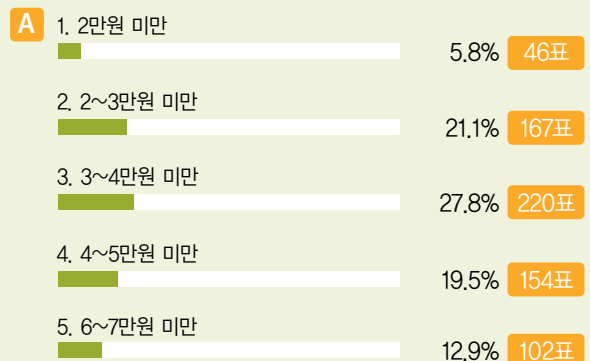
Q 사용하는 이동통신 회사를 선택한 주된 이유



Q 현재(지난달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부가 서비스 (복수 응답)



Q 월평균 이동통신 사용 요금



Hot Issue :

| | | |
|-----------|-------|------|
| 6. 7만원 이상 | 12.9% | 102표 |
| 7. 모름 | 0% | 0표 |

Q 사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요금 수준

| | | |
|-------------|-------|------|
| A 1. 2만원 미만 | 79.4% | 627표 |
| 2. 2~3만원 미만 | 8.6% | 68표 |
| 3. 3~4만원 미만 | 5.2% | 41표 |
| 4. 4~5만원 미만 | 0.8% | 6표 |
| 5. 6~7만원 미만 | 0.6% | 5표 |
| 6. 7만원 이상 | 0% | 0표 |
| 7. 모름 | 5.6% | 44표 |

Q 사용중인 이동통신서비스 및 기기 관련,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 | | |
|---------------------------------------|-------|------|
| A 1. 요금수준 | 58% | 458표 |
| 2. 음성/영상통화 품질 (통화 지역, 통화 성공, 음질 등) | 13.2% | 104표 |
| 3. 기기성능 및 디자인 | 8.6% | 68표 |
| 4. 부가서비스 내용 및 질 | 7.5% | 59표 |
| 5. 국제통화 | 0.4% | 3표 |
| 6. 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 | 8.4% | 66표 |
| 7. 기타 | 4.2% | 33표 |

Q 이동통신 요금 중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은

| | | |
|---------------------------|-------|------|
| A 1. 가입비 | 22.9% | 181표 |
| 2. 월 기본요금 (기본료) | 29% | 229표 |
| 3. 이동전화 국내통화요금 | 12% | 95표 |
| 4. SMS 이용요금 | 10% | 79표 |
| 5. 데이터통신 (무선 인터넷) 요금 | 13.2% | 104표 |
| 6. 국제로밍 및 국제전화 요금 | 0.5% | 4표 |
| 7. 부가서비스 (컨텐츠) 요금 | 3.8% | 30표 |
| 8. 기기 구입 비용 (월 할부금 형태 포함) | 6.5% | 21표 |
| 9. 기타 | 2.3% | 18표 |

Q 현재 이동통신 사용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누구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가? (통신회사는 당사자로 제외)

| | | |
|----------------------|-------|------|
| A 1. 사용자 단체 / 소비자 단체 | 26.3% | 208표 |
| 2. 행정기관 (정부) | 59.2% | 468표 |
| 3. 입법기관 (국회) | 9% | 71표 |
| 4. 사법기관 (법원) | 3.3% | 26표 |
| 5. 기타 | 2.3% | 18표 |

Q 망내할인(동일 가입자간 요금 할인)이 모든 이동통신 회사(SKT, KTF, LGT)내에서 각각 이루어 진다면

| | | |
|------------------------------------|-------|------|
| A 1.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회사를 그대로 이용할 생각이다. | 62.4% | 493표 |
| 2. 다른 이동통신회사로 바꿀 생각이다. | 16.6% | 131표 |
| 3. 아직 모르겠다. | 21.1% | 167표 |